



6 Interview

자랑스러운 동국인
국민은행장 민병덕 동문
국민은행장 민병덕 동문을 만나
그의 철학과 학창시절의 추억에 대해
들어봤다.

동대신문

금주일언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감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客氣)부려 만용(蠻勇)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라.

〈잡보장경〉 제 3 권 용왕개연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98호 2010년 (불기 2554년) 11월 1일 월요일

Cover Story 눈앞에 다가온 스마트 캠퍼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패러다임의 변화 주도할 인식전환 시급

편리성 좋지만 보안·인프라 구축 등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이동국(22)군은 일명 '얼리어답터(Early-adopter)'답게 그의 일상
은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스마트 폰
으로 끝난다. 통학시간에 맞춰 버스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하
루의 일정을 미리 체크한다. 스마트
폰으로 복학을 신청한 그는 폰으로
학사일정을 확인해보기도 한다. 과
제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e-class를 들어가 확인한 뒤 바로
도서 대출까지 완료한다. 같은 과 동
기와 FMC(교내 무선전화)를 이용
해 무료로 전화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 한다.

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대학가는 스마트폰 열풍

다른 대학가의 스마트캠퍼스화로
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포항공대
와 UNIST(울산과학기술대), 서울
여대와 같은 학교들은 각각 KT, SK
와 체결을 맺어 학생들에게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UNIST의 문
창구 정보서비스팀 직원은 "현재 스
마트폰 보급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이 뜨거워 신청학생이 많아 순번을
기다려야 할 정도"라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 활발해졌다"고 밝혔다.

내 손안의 동국 DSU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은 얼리어답
터가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는 조금
낯설다. 하지만 최근 진행 중인 우
리대학 스마트캠퍼스 모델 DSU(이
하 Dongguk Smart Ubiquitous
-Campus)를 바탕으로 재해해 낸
'동국이의 하루'와 같은 생활의 변
화가 실제로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
고 있다.

지난 9월 8일 정보관리실은
"DSU-Campus구축을 위한 스
마트캠퍼스 구현 방안"을 골자로
SMART-Campus플랜을 제시했다.
DSU-Campus란 시간과 장소의 제
약 없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용자 만족시킬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며,
Social Network를 지원하는 효율적
이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한 첨단
캠퍼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사
행정서비스, 도서관서비스, FMC원
격통신, 각종 캠퍼스정보를 스마트

그런가 하면 단말기 보급으로 인
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SK와 체
결을 맺어 갤럭시S를 나눠주는 포
항공대의 안전관리팀 양영선 팀장
은 "갤럭시S와 아이폰이 서로 다른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는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
도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앱 개
발 관련 학생 동아리를 지원하기도
한다. 동아리를 만들어 '교내 앱 경
진대회'에서 우수한 안병직(미디어
통신공학4)씨는 학교로부터 사무실
과 컴퓨터를 지원받은 학교와 학생
의 win-win효과를 거둔 한 예다.

손바닥안의 강의실 'M러닝'

또한 M러닝을 향한 움직임도 활
발하다. Mobile-learning의 줄임말
인 M러닝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
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강의수강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적지않은 어려움



▲실시간으로 학내뉴스를 전달하고 있는 동국미디어센터 아이폰 앱.

이 따른다.
서울사이버대학 콘텐츠 대학의
최준성 주임은 "M러닝을 통해 시간
절약의 효과를 꾀할 수 있지만 PC
에 비해 화면 크기가 작아 보기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동영상의 파일 크기가 크기
때문에 와이파이존 외에서 수강할
시 요금 초과에 대한 부담감도 무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안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제중
의 하나다. 서울여대 조현미 팀장은
"성적이나 인적사항을 조회할 어플
을 만들고 싶어도 보안문제 때문에
걸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해낸 사례도 있다.

포항공대 안전관리팀 양영선 팀
장은 "갤럭시 S자체에 V3배 모바일
용이 탑재되어 있고 학교 PC가 쓰는
보안망과 동일한 망을 사용하기 때
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보안
극복사례를 제시했다.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

타 대학의 사례에서도 살펴봐왔지
만 새로운 문명은 양날의 칼이다. 우
리대학도 마찬가지로 20%가 채 되
지 않는 낮은 보급률과 비용문제, 보
안문제 등을 간과해서 안된다. 정보
관리실 문상국 팀장은 "스마트폰이
동국 구성원의 의견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
다"며 "이제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
다임의 흐름을 모두가 인식하고 준
비해나가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제 갈자루는 우리에게 쥐어져
있다. 타 대학의 사례를 통해 야기
될 수 있는 우려와 문제점을 미연
에 방지하고 적절한 모델을 찾는
등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 된다면 가
까운 시일 내로 Dongguk Smart
Ubiquitous -Campus가 도래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금강산을 다녀오며



제정 스님
본교 정각원 교법사

한국불교 2000년 역사에서 국토의 곳곳
이 불교와 인연 없는 곳이 있으랴. 그 가운데
에서도 경주 개성 그리고 금강산을 3대의 불
도(佛都)와 성지라 할 수 있다. 신라 천년이
라는 유구한 역사에서 경주는 영광스러운
수도였다.

또한 개성은 어떠한가. 청자로 대표되는
고려는 참다운 불교국가였다.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던 비취색 고려청자는 인류사의
찬란한 보물이다. 뛰어난 고려 문화의 중심
지가 개성이었다.

금강산!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라는 말이 첫째로 떠오르겠다. 금강산은 삼
국시대부터 불교의 성지였고, 산 전체가 하나의 불신(佛身)으로 숭앙
되었던 성산이다.

고대문화의 고속도로인 바닷길로 불교가 전해졌다는 이야기는 유
점사의 창건연기에 전해 온다. 금강산 지역에는 해상의 실크로드 때
문에 생긴 이름들을 볼 수 있다. 삼일포는 화랑들과 신계사는 김유신
과 인연이 있다. 발연사와 내금강의 표훈사는 백제의 불교와 관계가
깊다.

고려의 왕건은 정양사에서 법기보살을 친견한 후 대업을 성취했
다. 조선의 이성계는 금강산에 자신의 발원을 담아 금불상을 모셨다.
조선 500년 동안 불교탄압에서도 금강산은 모든 불자들의 고향이였
다. 근세에는 독립운동가 초월스님이 잠시 포신하였고, 효봉선사 등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했던 곳이 금강산이다.

필자는 4년 동안 금강산에 머물며 신계사를 복원하였다. 그 후 3년
만에 다시 그곳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
다. 관광객이 붐비던 남북출입사무소 대기실은 텅비고 고풍이 냄새
만 가득했다. 어렵게 뚫렸던 도로 옆에는 잡초만 늘어져 황량하였다.
철책부근의 선명한 가을 산에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남북이라는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자유로운 날들은 언제가
될까" 생각해 본다. 긴장관계는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못된다. 나
만 옳다는 편견의 사고를 벗어나면 모두가 자유롭지 않을까. 원호대
사의 화쟁사상이 더욱 그리워 지는 가을이다. 부처님께서는 『살차니
견자경』에서 "백성으로써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민심이 불안하면
장차 나라 또한 위태로워진다. 이 때문에 왕은 항상 백성 근심하기를
갖난야기 생각하듯 하여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 청
명한 가을하늘 같은 맑은 눈을 가진, 하얀 여새풀 같은 푸근한 덕성을
지닌 지도자들을 기대하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

동대학술상 동대문학상 모집 11월 21일까지
다음 신문은 11월 15일자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금주의 동대신문

7 [기획]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8 [특집] 박한이, 박정권 선수 인터뷰

12 [문화] 슈퍼스타 D

국제정보대학원
경철사법대학원
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일반대학원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영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세상을 비추는 힘 | 동국대학교 | 세상을 깨우는 이름 | UNIVERSITY

세상을 담는 큰 그릇

당신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도전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국대학교 대학원은 100년 전통의 바탕 위에
전공의 깊이를 더해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키웁니다

대학원명	원서접수기간	면접일	대학원명	원서접수기간	면접일
일반대학원	2010.10.28(월)~11.3(수)	11.13(토)	영상대학원	2010.10.25(월)~11.1(월)	11.6(토)
불교대학원	2010.11.8(월)~11.26(금)	12.1(수)	문화예술대학원	2010.11.8(월)~11.19(금)	11.27(토)
법무대학원	2010.11.8(월)~11.26(금)	12.1(수)	언론정보대학원	2010.11.8(월)~11.19(금)	11.27(토)
행정대학원	2010.11.22(월)~11.29(월)	12.4(토)	국제정보대학원	2010.11.8(월)~11.19(금)	11.27(토)
경영전문대학원	2010.10.25(월)~11.12(금)	11.20(토)	경철사법대학원 (신설)	2010.11.22(월)~12.2(목)	12.4(토)
교육대학원	2010.11.8(월)~11.14(일)	11.27(토)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를 참고해 주십시오.

회전무대

집중합시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축구의 강세에 동약의 전사가 한 몫 했다는데.

무슨 일이고 하니, 지난 10월 있었던 2010 아시아축구연맹 U-19 선수권에서 우리대학의 이기제(체교1)선수가 대표팀에 발탁돼 맹활약을 했다고.

8강 한일전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돋보이는 활약에도 교내에선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아쉽다는 체육실 관계자의 후문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동국을 가슴에 품고 뛰는 선수, 우리가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절름발이 에티켓?

○...동국인의 에티켓이 절름발이 에티켓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고 하니, 지난 30일 중앙도서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도서관 에티켓 지키기 캠페인이 마감됐다고.

하지만 중앙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요즘 학생들이 캠페인이 마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서관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정치인도 레입덕, 동국인의 에티켓도 레입덕?”

흥익동국

○...지난 21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우리대학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고 하니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대학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이번에 기부 받은 5천만 원은 전액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기부자의 이름을 아는 이는 없지만, 기부자의 사랑은 널리 동약을 이롭게 하리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8일 출범

27명으로 구성, 2개월 내에 총장후보 선출해 법인에 제출해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오는 8일에 출범(出帆)할 예정이다.

총추위는 가장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3~5인의 총장후보자를 법인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며, 출범 이후 2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총추위 규정안에 따르면 총장후보자는 '서울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교수로서, 교·직원, 조계종 재직 승려, 동문을포함한 20~30인의 추천을 받은 자',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인사로, 교·직원, 조계종 재직 승려, 동문을포함한 20~30인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해당(該當)돼야 한다.

총추위는 △교원 대표위원=12명 △직위 대표위원=4명 △조계종 대표위원=4명 △동문 대표위원=2명 △사회인사 대표위원=3명 △학부학

생 대표위원=1명 △대학원생 대표위원=1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構成)된다.

교원 대표위원은 각 단과대별로 학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각 1인씩 총 11명을 선정하고, 일반대학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1인을 선정한다. 직위 대표위원은 직원노조위원장 주재하는 회의를 통하여 선정되며, 조계종 대표위원은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 사회인사 대표위원은 이사장 정년 스님의 재량(裁量)으로 선정하며, 학부학과 대학원생 대표위원은 해당 학생회에서 선정한다.

한편 이번 총추위 규정은 지난 달 4일 새로 개정된 규정이다. 새로 개정된 이번 규정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

하던 기존 규정과 달리, 우리대학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총추위에는 서울캠퍼스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총추위에는 경주캠퍼스 구성원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경주캠퍼스 부총장 선임 방식도 바뀌게 됐다. 기존에는 총장 제청(提請) 이후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총추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 의결 이후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법인사무처의 유한림 부장은 “이번 총추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주캠퍼스 부총장의 임명 방식이 변경된 동시에 2년이었던 임기도 4년으로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경주캠퍼스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미주 명문대학과 학술교류 확대

내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교류 시행할 예정

우리대학이 미국의 명문대학인 뉴멕시코 대학, 미주리 대학, 그리고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締結)했다.

오영교 총장은 지난 달 6일부터 13일까지 미국과 브라질을 방문해, 교환학생 확대를 골자(骨子)로 하는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또 이미 학술교류를 진행 중인 텍사스 대학

에도 방문해 교류 협정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대학은 미국의 뉴멕시코 대학과 연계(連繫)해 우리대학 영어영문학부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현지학기제(학과 단위의 1학기 교환 프로그램)를 실시(實施)한다. 현지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뉴멕시코 대학에서 수강하는 정규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금을 면제(免除)할 예정이다. 또 우리대학은 미주리 대학과 상파울로 대학과도 학생교류를 시행(施行)한다. 세 대학과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오는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오 총장은 텍사스대를 방문해 상호 교류 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1:1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또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방침(方針)이다. 이지수 수습기자 cho218@dgu.edu

박선영 교수, 도서관에 도서 기증

한글대장경 등 불교자료 1만여 권, 27일 감사패 전달



중앙도서관이 1만여 권의 도서를 기증한 박선영 명예교수(교육학과)

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식은 지난 27일, 중앙도서관장실에서 열렸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박선영 교수는 지난 8월 27일 중앙도서관에 ‘한글대장경’, ‘속장경(續藏經)’ 등 다양한 불교학 자료들과 ‘한국지리총서’, ‘이십오사(二十五史)’ 등 지리학, 역사학, 교육학 관련 책 총 만여 권을 기증한

바 있다.

이 날 박선영 교수의 대리(代理) 수상자로 참석한 팔 박지용(화학88졸)씨는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의미있는 일을 하게 되어 뜻깊고 보람차다”며 “앞으로 이 책들이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증된 도서는 중앙도서관에서 박선영 교수의 뜻에 따라 도서의 복본(複本)조사를 실시한 후 미소장 도서는 중앙도서관에 비치하고, 복본도서는 동방대학에 기증했다.

안신정 수습기자 jekyl@dongguk.edu

운길산 연습림 관리자 리모델링

미래지향적 자연 환경 생태교육지로 변모할 듯

운길산 연습림 관리자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이 이달 초 공사를 시작한다. 관리자사무소와 그 주변 시설의 환경 개선(改善)을 위한 이번 공사는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관리자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운길산 연습림 지역 개발 사업’의 1단계 사업에 해당되며, 총 10억 원의 사업개발 예상비용 중 약 1억 2천만 원이 소요(所要)될 예정이다. ‘운길산 연습림 지역 개발 사업’은 미래지향적 자연환경 생태교육을 추진(推進)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인 운길산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접근성이 용이해, 개발 시 자연 환경 생태교육지로의 발전

이 유리하다. 사업개발팀 김규환 팀장은 “현재는 운길산 연습림 시설이 매우 열악해 제대로 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개발을 통해 우리대학은 더 나은 생태실습현장을 보유(保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길산 연습림 개발 사업은 당초 지난 학기에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예산 배정 문제로 인해 연기됐다.

이에 대해 김규환 팀장은 “그동안 운길산 개발 사업은 불요불급(不要不急)의 사업으로 여겨져 예산배정에서 뒤쳐져 있었지만, 관련 부서 협의 끝에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관리자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익명 기부자, 5천만 원 쾌척

기부금 전액 후학양성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

익명의 기부자가 우리대학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익명 기부자는 지난 21일 우리대학을 방문해 오영교 총장에게 직접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 기부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동국대의 빠른 발전 속도와 성취에 감탄하며 ‘대한민국을 선도(先導)할 명문사학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기부를 결정했다”고 기부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는 “캠퍼스가 아름답고 깨끗해 인상 깊었다”며 “오영교 총장이 추진하는 CS 경영 결과를 체감(體感)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달받은 기부금 전액(全額)은 장학금으로 적립돼 우수학생 양성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가을축제 ‘슈퍼스타 D’ 성황리에 종료

대상에 김준영 (경제3) 군, 동아리 공연도 열려

지난 28일과 29일에 각각 개최된 동연제와 목백 가요제가 성황리(盛況裡)에 막을 내렸다.

동연제는 주간전시와 야간행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 9시부터 팔정도에서 동아리 전시회가 열렸고, 야간행사는 대운동장에서 OPUS, 피어리스틴, 뭉개구름, 아리랑, AJAX, O.D.C 동아리의 공연(公演)과 초청가수 길미의 공연이 이뤄졌다.

한편, 두 번의 예선을 거쳤던 목백 가요제는 29일 오후 6시 대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가요제의 대상은 김준영(경제3) 학생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최문기(수교4) 학생과 이원호(신방4) 학생, 갈우주(영동2) 학생의 팀, 우수상은 정다희(컴공1) 학생이 차지했다.

초대가수로는 나비와 카피미신, DJ DOC가 초청됐다.

2011학년도 전기 외국인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1. 모집과정 :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2. 모집인원 : 학위과정별 각 학과 약간 명

3. 지원자격

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나. 국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고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11년 02월 이전 취득예정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고사

- 불교학과(박사과정), 경찰행정학과(석사/박사과정)는 필기고사 실시

5. 전형일정

Table with 2 columns: 구분 (Category) and 일정 (Schedule). Rows include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0. 10. 25(월) ~ 11. 03(수)), 전형일 (2010. 11. 13(토) 예정), 합격자발표 (2010. 11. 30(화)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입시공지 (www.dongguk.edu) 참조

■ 서울캠퍼스 국제화추진단 외국인서비스센터 : T. (02)2260-8981-2

국제화추진단

Advertisement for Dongguk MBA. Features a brain graphic made of small images and text: '미래를 여는 큰 생각, 동국 MBA'.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link.

Advertisement for Dongguk Law School. Features a brushstroke graphic and text: '2011년 대한민국 최초로 경찰사법대학원이 새로운 획을 긁습니다'. Includes details about the school and application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Lists application detail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Promotion Unit.

동국기술지주, 2호 자회사 설립 확정

코스맥스·케어카라와 협약 ... 화장품 제조 유통사업 진출



우리대학 기술지주 주식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가 코스맥스(대표이사 이경수)와 그의 자회사인 케어카라(대표이사 이진우)와 지난 9월 28일 협

약을 맺고 제 2호 자회사를 설립(設立)했다. 기술지주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대학 생명과학연구원과 코스맥

스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술력과 케어카라의 영업력을 결합해 산학협력체계를 구축(構築)하게 된다. 또 이를 통해 화장품 사업 등에 진출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수익사업을 통해 우리대학 생명과학연구원원의 화장품 원료 소재 연구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 일산병원과 연계하여 화장품과 연관된 생명과학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은 물론, 임상분야의 융합 연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지주회사 측은 코스맥스의 우수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신규 합작 사업에 모든 역

량(力量)을 집중할 수 있는 사업 구조, 신설로 인한 투자 부담 및 비용 절감 가능 등을 들어 케어카라를 2호 자회사로 설립한 이유를 밝혔다.

기술지주회사의 2호 자회사 브랜드인 '연애(蓮愛)'는 불교의 상징인 '연(蓮)'을 차용함으로써 우리대학의 불교적 이미지를 화장품과 연계하여 친환경 한방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연말에 출시 예정인 '연애'의 신제품은 기초 스킨과 에센스, 핸드크림, 손 소독제 등이다. 연애의 신제품들은 2~30대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며, 후에 점차 확대해 나갈 전망(展望)이다. 한편, 기술지주회사는 현재 '연애'의 브랜드 로고 및 심볼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참가 신청과 작품 제출은 이달 5일 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와 케어카라 홈페이지(http://www.carecara.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김종필 감독, VFF컵 대표팀감독 선임

지난 추계대학연맹전 우승으로 지도력 인정받아

우리대학 축구부의 김종필 감독이 2010 VFF컵 국제축구대회의 한국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또 우리대학의 이호승(체고3), 조영훈(체고3), 추평강(체고2)도 대표선수로 발탁됐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싱가포르, 북한이 참여해 리그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대학선발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김종필 감독은 "상대팀들은 모두 성인 대표팀 멤버로 가동(稼動)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莫重)하다"며 "선수들을 열심히 지도해 우승으로 이끌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대표팀은 오는 2일 오후 7시 베트남의 My Dinh 경기장에서 서 베트남과의 1차전을 가질 예정이다.

독서 장려위한 글벗상 시상식 열려

송규환, 김현태, 황재성, 김지웅 군 다독상 수상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고 독서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되는 '2010학년도 1학기 글벗상 수상 도서상'이 지난 달 12일 중앙도서관 2층 AV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글벗상은 △송규환(불교학4) △김현태(회계학3) △황재성(식물생명공3) 학생이 수상했다. 대학원생 수상자로는 총 2백 권의 도서를 대출한 김지웅(언론정

보대학원) 학생이 선정(選定)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최순열 학사부총장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대학생다운 지성과 젊음을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학교 측도 더 나은 도서관 환경 조성을 통해 이런 바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술학부 전공자 졸업전시회 개최

오는 23일까지 문화관 동국갤러리에서 열려

미술학부의 졸업전시회가 지난 달 22일부터 29일까지는 2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문화관 지하 1층 동국갤러리에서 개최되며, 미술학부 학생들이 졸업 논문을 대신해 제출(提出)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지난 달 22일부터 29일까지는 한국화전공 학생들의 전시회가 진행됐다. 한편 서양화전공은 오는 2일부터 8일, 불교미술전공은 9일부터 15일, 조소전공은 17일부터 23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豫定)이다.

취업준비생 위한 CUP프로그램 운영

채용정보·면접·입사지원서 작성 등 준비과정 지원

취업지원센터가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오늘(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Career Upgrade Program (이하 C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CUP 프로그램은 취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4학년 학생들 50명을 대상으

로 진행된다. CUP프로그램은 본인의 직업 흥미, 취업방향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면접이나 입사지원서 작성에 관련된 취업스킬교육 등을 통해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1회 대원불교문화상에 김용태 교수

김지훈(콘텐츠기획)·이수재(시나리오) 금상 수상

대한불교진흥원이 후원하고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회 대원불교문화상 수상자로 저서 부문에 김용태(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콘텐츠 기획 부문에 김지훈(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군, 시나리오 부문에 이수재(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양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불교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된 대원불교문화상은 불교학술분야와 불교창작분야로 나누어 총 3천5백만 원의 상금이 지원돼 학내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15일 열린 시상식에는 김용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조선 후기불교사 연구'로 상금 7백만 원을 받았으며 불교창작분야의 콘텐츠 기획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지훈(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군이 '한국불교 사찰음식의 고찰'을 기획해 상금 2백만 원을 받았다.

또, 콘텐츠 시나리오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수재(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양이 '아버지의 노을'이라는 시나리오로 상금 2백만 원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밖에도 콘텐츠기획부문에서 장은영(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양과

전주영(한국음악과 불교무용전공) 양이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콘텐츠 시나리오부문에서는 박성혁(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군이 은상을 수상했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천문우 교수, 바이오메디융합

캠퍼스연구기획위원회장에

천문우 바이오시스템 석좌교수가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 연구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委囑)됐다.

위원회는 향후 일산 캠퍼스에 들어올 예정인 바이오시스템대, 약대, 의대, 한의대가 사용할 기자재(器資材)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영기획팀의 유광호 팀장은 "좋은 기자재를 일산의 내개 단과대에 모두 비치(備置)하고 싶지만 여건상 곤란하다"며 "내개 단과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자재를 공유 할지에 대해 조율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 업무"라고 밝혔다.

한편 천문우 위원장의 위촉기간은 2012년 10월 10일까지이다.

동악로에서



하상원 기자 sang1@dongguk.edu

영어실력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

영어강의와 영어 리포트, 영어면접 등 학생들은 영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지난 14일, 해화관에 English Zone이 새로 문을 열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어인 선생님과 자유로운 주제로 대화를 하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화관 English Zone에서 활동하는 루스리들 교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며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곳은 신설(新設)된 해화관의 English Zone외에도 학림관의 English Cafe, 경영관의 English Zone이 있다. English Zone을 이용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정현채(영문10) 군은 "영어공부뿐만 아니라 원어인 선생님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또 배은샘(인도철학08) 양 역시 "질문한 것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English Zone을 이용하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어교육센터의 송민수 과장에 따르면 해화관의 English Zone은 개관(開館) 이후 100명이 채 안되는 학생들만이 이용했다고 한다. 즉 하루 평균 8~9명의 학생만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학림관 English Cafe에서 활동 중인 알과결 최경애(경영09) 양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는데도 2~3일 동안 한 명만 올 때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원이나 어학연수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정작 학교 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English Zone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은 공강 시간에 학내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보는 것이야말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다.

동국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 부문	캠퍼스 및 인원	응시 자격
정규직	행정직 (일반)	서울 0명
	행정직 (외국어 (영어))	서울 0명
	행정직 (건축)	서울 0명

- 공통 자격
 - 4년제 정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 대학 전학년 평균성적이 80점(100점 만점 환산) 이상인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 대학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

2. 전형 방법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 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등에우무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재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거가산점 부여합니다.

3.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공지사항 참조)

4.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온라인 접수시 파일 작성 및 업로드)

- 행정직(일반) : 지원서, 자기소개서
- 행정직(외국어(영어)) : 지원서, 자기소개서(영문), 전문역량기술서(영문)
- 행정직(건축) : 지원서, 자기소개서, 전문역량기술서
- ※ 온라인에서 지원서 작성시 세부 안내사항 참조

5. 추가 제출서류(필기시험 당일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학부, 대학원)
-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점수 기재) 각 1부
- ※ 편입자는 전직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제출 시 원본 반드시 지참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 시 원본 반드시 지참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군필자)
- 경력증명서
- 보훈증명서(해당자)
- 불교도신행증(소정양식) 1부(대한불교조계종산하 사찰 직인 및 주지스님 인장 날인)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 기간 : 2010. 11. 5(금) - 11. 19(금) 17시까지

7. 채용 주요 일정

내용	일자	비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1.24(수)	학교 홈페이지
필기전형	11.27(토)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11.30(화)	학교 홈페이지
면접전형	12. 9(목) - 12. 10(금)	
최종 합격자 발표	12.13(월)	개별 연락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동국대학교 운영지원본부 총괄지원팀(☎02-2260-3072, 3073)

9. 유의 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작성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동국대학교 멘토-멘티 DAY

2010년 동국대 멘토-멘티DAY를 개최합니다.

동국대학교 학생경력개발원에서는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등 다양한 분야에 근무중인 선배들(멘토)와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후배들(멘티)를 위한 2010년 동국대 멘토-멘티데이를 개최합니다.

1. 일 정
11월 3일(수) 18:30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

2. 행사내용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 근무중인 선배들(멘토)
- 본교 학생들(멘티)의 만남

3.참석인원
동문 멘토/ 학생 멘티

4. 행사운영
18:30~19:30 개회사& 멘토-멘티 식사(참석자 식사제공)
19:30~21:30 멘토-멘티 정보교류및 커뮤니티형성
(기업이해,취업조건,기업정보 교류 등)

5.참가신청&행사 문의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02-2260-3056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TEL 02-2260-3056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러닝(SmartLearning)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콘텐츠가 대학경쟁력이라는 인식 필요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도서, 논문 등 인프라 확충도 선결과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은 2010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500만대에 달한다. 500만 대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퍼센트, 경제활동 인구만을 놓고 봤을 때는 20퍼센트가 스마트폰 사용자라고 해도 무방하다.

현재의 스마트폰 사용 인구 증가 추세(趨勢)가 이어진다면 2011년 말까지 150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국내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인 생활에 스마트폰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교육에서도 스마트기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가에 불고 있는 스마트러닝 바람

대학가에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기기가 학습의 중심이 되는 스마트러닝을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러닝(SmartLearning)이란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맞춤형 지능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 대학을 중심으로 스마트러닝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디지털 대학은 특정 통신사나 휴대폰 기종(機種)에 상관없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33개의 교양 과목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강의 수강뿐 아니라 수업 문의, 학사 정보 확인과 자료실과 게시판 이용 등 30여개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디지털 대학은 오는 2011년 1학기부터 수강가능 강의를 전 강의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대학 외에도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스마트러닝의 도입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대부분 대학들이 통신업체와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 학교생활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앱(App)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시간·공간의 제약 없는 스마트러닝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스마트러닝을 할 경우 기존의 이러닝(E-learning)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닝 학습자들은 학습 기간 동안 PC 앞에 앉아서 학습해야만 했다.

하지만 스마트러닝의 경우 이러한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습할 수 있다. 또 쉽게 자료의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는 트렌디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 동시에 이동 중에 콘텐츠를 만들어 바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마트러닝이 도입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이점은 따로 있다. 스마트기기 속 앱 스토어(App Store)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학습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기능을 이용해 학습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이렇듯 스마트러닝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기술적, 의식적 제약(制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기기의 기술부족, 통신과 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부족, 스마트러닝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부재, 학습 콘텐츠의 부족, 경영자의 인식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LMS 시스템 이용해 효율적 학습

스마트기기를 학습도구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학습 관련 앱을 제작해 앱스토어에 올리는 방법이다. 학습콘텐츠를 앱으로 만들어 앱스토어에 올리면 학습자는 스마트기기에 다운 받기만 하면 쉽게 학습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경우 트렌디한 콘텐츠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따로 앱을 제작해야 하고 학사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이러닝 LMS에 스마트기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크로스 플랫폼(Cross Platform)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방법은 기존의 이러닝 LMS를 이용하면서 이러닝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러닝 콘텐츠는 PC에 최적화돼 있어 스마트기에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러닝 LMS를 이용하는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더욱 스마트한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의 모습

방법이다. 바로 스마트러닝 콘텐츠에 적합한 플랫폼을 개발해 이용하는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해 스마트러닝의 학사관리와 학습진도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러닝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도구가 제공돼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개발 초기에 콘텐츠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프라와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스마트러닝을 학교 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스마트기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경우 전교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학기부터 스마트러닝을 실시할 수 있었다. 통신시설의 인프라 구축(構築)은 필수적이다. 캠퍼스 내 어느 곳에 서든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학사행정 부분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갖춘 상태다.

하지만 단순히 학사행정 측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 측면까지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교육 측면에는 단순 강의만 포함(包含)되는 것이 아니다. 학습을 위해 필요한 도서나 논문 등이 데이터베이스(DB)화돼 있어 학습자는 열람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앱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뿐 아니라 학생과 교수, 직원들이 스마트러닝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즉 제대로 된 스마트러닝을 위해서는 의식전환, 인프라구축, 콘텐츠 준비, 스마트기기의 활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

김영환 대표
앱 컨설팅



‘민족’ 자체가 다문화적 실체라는 인식 필요

문화학술원 주최 ‘다문화 시대의 하이브리드 컬처’ 학술대회

우리대학 문화학술원이 주관한 ‘다문화 시대의 하이브리드 컬처’ 가을 정기 학술대회가 문화관 덕담 세미나실에서 지난 29일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지는 다문화현상과 그에 대한 우리사회의 현재 모습을 생각해보자는 취지(趣旨)에서 열렸다. 발제자로는 우리대학 한국문학연구소 허병식 연구원, 우리대학 대중문화연

구소 이종임 연구원, 지구촌동포연대 조경희 집행위원, 수원대 김현숙 교수, 중원대 서영교 박물관장이 참여해 우리사회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허병식 연구원은 ‘200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와 정체성 정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허 연구원은 다문화주의에 대해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현상이 내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이종임 연구원은 ‘다문화주의와 미디어 -TV드라마에서 재현되는 다문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드라마는 다른 문화의 대상을 타자화하며 그들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텔레비전에서 재현되고 있는 텍스트나 의미는 누구를 위한 다문화주의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자인 조경희 집행위원은 ‘다문화와 민족 사이의 디아스포라’라는 주제

로 발표했다. 조 집행위원은 “민족 자체가 수많은 경계선을 내포한 다문화이며 혼성적인 실체라는 것을 사람들이 곧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부 첫 발제를 맡은 김현숙 수원대 교수는 ‘초국가적 입양과 탈(脫) 경계적 정체성 :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 소설에서는 개별화(個別化)할 수 없는 다양한 입양인의 경험이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示唆)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서영교 중원대 박물관장은 ‘고구려국가의 다문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구려의 다문화정책은 강적(強敵)에 대항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思考문치] 2010-2 동국 글쓰기 아카데미
[想像예찬] 2010년 2학기 동국 글쓰기 공모전

“Report 혁명! 생각을 뒤집어라!”

창의적 보고서 쓰기	화 18:00-20:00	M134	조형래 문학평론가, 동국대 강사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글쓰기	목 18:00-20:00	M134	구인모 동국대 강사

- 시작일 : 2010년 11월 9일(화) / 11월 11일(목)
- 강좌당 주1회 2시간 (총 8시간, 4주 과정)
- 신청방법 :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
- 등록기간 : 각 강좌 시작 전일까지
- 신청대상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수강료 : 수강 신청 시 수강료 10,000원 납부 (3/4 출석 시 환불)

사고충전! “다 쓴 보고서 받습니다”

(제 7회 동국 우수보고서 공모)

-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공모대상 : 2010년 1학기 / 2학기 교양수업 보고서, 감상문(독서, 영화비평, 기행문) 등 자유글쓰기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50만 원 / 우수상 3명 각 10만 원

응모마감 || 11월 30일(화)
응모방법 ||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결과발표 || 2010년 12월 10일(금)
기타 || 제출할 원고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보고서 공모의 경우 강좌명, 담당교수명 기입)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http://writing.dongguk.edu
TEL. 02)2260-3380

정치외교학과 스물두번째 모의국회 안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한해의 결실을 맺는 가을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올해 스물두번째 모의국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학우들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자리이오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 Pecunia non olet (돈은 악취를 풍기지 않는다) -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
- 일시 : 2010년 11월 12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
- 주최 : 제64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 주관 : 제22대 모의국회 준비위원회

정치외교학과

ARCHITECTURE MUST 3 EXHIBIT THE 3 PRINCIPLES OF FIRMITAS, UTILITAS, VENUSTAS

34th The Dongguk Architecture Exhibition
17-19 Nov. 2010 신사동 대림주택문화관 open at 10:30 ~ 18:00

2010년 취업 스터디 경진대회 개최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스터디 활동 지원 및 우수 취업 동아리 지원을 위해 취업스터디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취업지원센터 등록 동아리 및 일반 교내 취업 스터디는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2010년 취업스터디 경진대회
- 행사일시 : 2010년 11월 3일 16:30
- 행사내용 : 우수 취업스터디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취업스터디 경진대회
- 행사방법 : 취업스터디 운영 프로세스, 차별화된 운영 사례, 취업 (인턴) 사례의 발표팀 중 우수팀 시상

구분	시상팀	시상금	비고
1	최우수상	1	50만원 상당
2	우수상	1	30만원 상당
3	장려상	2	10만원 상품권

- 참여대상 : ‘취업’이라는 공통 주제로 스터디 하는 동국대인(5인 이상)
- 평가내용 : 운영방법 및 계획, 취업전략 및 수행, 취업스터디 취업률 등
- 신청기간 : ~ 2010.10.30(수)까지
- 신청방법 : 취업지원센터에 방문, 전화, 이메일을 통한 신청 (02-2260-3056 / sh0317@dongguk.edu)
- 참여혜택
 - 우수팀 시상(시상내용 참조)
 - 시상금 모두는 취업지원센터 스터디로 등록되어, 월별 활동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입사지원서 첨삭 및 모의면접 지원
- 문의사항 : 취업지원센터 2260-3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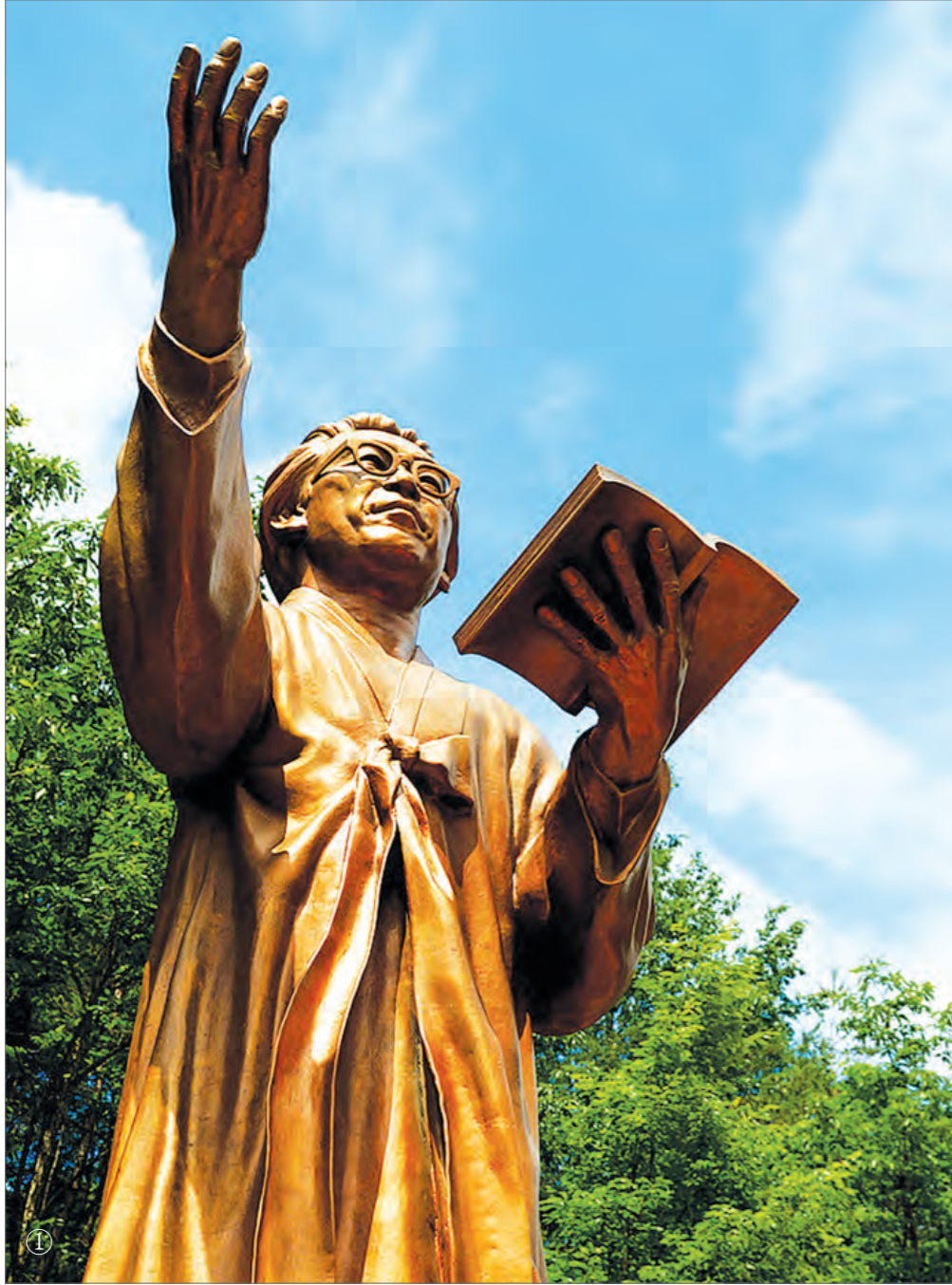
취업지원센터

동국 문학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서 ③ 동탁 조지훈

올곧은 기개의 선비이자 한국 시의 큰 봉우리

순수문학에서 현실 참여적 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를 아우른 시인 조지훈의 삶을 조명한다

“투명하고 예리한 감성, 밝은 지성, 운택한 정서를 통하여 한국 현대 시사에 하나의 불멸한 업적을 남긴 시인.” 청록파 시인 박두진이 동탁 조지훈을 평한 말이다. 우리 겨레가 애송하는 주옥같은 작품을 남기며 ‘국민시인’으로 불리고 있는 동탁 조지훈, 그의 시 세계를 조명한다.



동탁 조지훈 연표 (1920 ~ 1968)
1920년 : 12월 3일 경상북도 영양에서 출생.
1939년 :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 등단. 1968년 : 한국시인협회 회장. 1962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1950년 : 문총국국대 기획위원장. 1946년 : 조선 청년 문화가 협회조직, 시집 ‘청록집 간행. 1968년 : 5월 17일 영면.



① 영양에 위치한 동탁 조지훈의 생가 뒷당에 위치한 조지훈 시인의 동상. ② 영양에 위치한 동탁 조지훈 시인의 생가. ③ 동탁 조지훈 시인이 지팡이를 들고 길을 걷는 모습.

연재 순서

1. '님의 침묵'의 한용운
2. 질마재 신화의 서정주
3. '승무'의 동탁 조지훈
4. 목가적 서정시인 신석정
5. '낙화의 신화 이형기
6. '농무'의 신경림
7. '태백산맥'의 조정래

잊혀지지 않을 조지훈 선생과의 만남

벌써 삼십여 년 저쪽 1965년경 일이다. 당시 국문학과 3, 4학년생이던 조정래, 박제천, 문효치, 그리고 필자 등등 글쓰기에만 매달렸던 우리들은 동국문화회관 동아리를 갖출법시켰다. 그동안 창작문화회, 용운문학회, 동대문화회, 다다 등등의 전공별 동아리 모임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그 통합을 기해 우리는 조지훈(1920~1968) 선생을 초빙해 특강을 듣기로 했다. 특강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 무렵만 해도 문학은 인문학의 중심일 뿐 아니라 사람들 일상에도 깊숙하게 녹아있었다. 교양이나 글 읽기의 다른 이름처럼 문학이 대접되던 때였다. 그런 시대 분위기 탓에 문학의 밤이나 문인의 특강 같은 행사는 곧잘 성황을 이루곤 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세태였던 셈이다. 특강 내용은 이제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무렵 처음 본, 시인 조지훈의 풍모는 아직도 내게 뚜렷하고 선명하게 떠오른다. 지훈 선생은 긴 머리를 가지런히 뒤로 빗어 넘긴 올백스타일 에다 후리후리한 큰 키에 단장을 짚은, 그러면서도 중후한 중년신사의 모습이었다. 강연 뒤 뒤돌아 자리는 자연스레 출판으로 바뀌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선생님 모교로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질문까지 던졌다. 그 질문에 선생은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고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뜻을 애둘러 말씀하기도 했다.

선생은 그 무렵 고려대에 재직 중이었다. 해방 후 잠시 모교인 동국대에 출강(1946)을 하다 고려대로 직장을 옮겨가신 일을 두고 한 말이었다. 지훈 선생은 까마득한 후배 학생들의 응석에 가까운 그 몸음을 어떻게 생

각했을까. 지금 보면 선생은 그 무렵 한국학 연구에 더 잠심하고 있을 때였다. 재직학교의 민족문화연구소 초대소장을 맡아 ‘한국 민족운동사’를 집필 중이었던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지훈 선생은 이 무렵 시와는 일 정거리를 둔 채 한국학 연구에 더 몰두했다. 이 연구의 대강은 ‘한국문화사 서설’에서 밝힌 그대로 국어학, 고전문학, 민족학, 역사학 등등에 걸친 방대한 규모의 것이었다. 그러나 지훈 선생의 한국학연구자로서의 면모는 이 글 성격 밖의 일이라서 아쉽지만 여기서 더 길게 말할 수 없을 터이다.

‘완화삼’에서 나타난 초기 시 경향

지훈 선생의 고향인 경북 영양 주실에 가면 마을 앞산에 작은 시비가 서 있다. 그 비석에는 작품 ‘완화삼(玩花衫)’이 음각돼 있다. 일제 말인 1942년 봄 경주로 내려가 초면의 박목월을 만나 건넌 작품이라는 이 시는 어쩌면 우리 근대시의 절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시인 지훈의 초기작품인 이 시는 박목월의 ‘나그네’와 짝을 이룬다. 멀리서 오는,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초면의 시 벗을 ‘조지훈 환영’이란 깃발 하나 달랑 들고 경주 기차역에서 기다린 목월에게 지훈은 이 작품을 맡았어 건넌다. 이 때 목월이 건넨 작품은 ‘발을 갈아 콩을 심고’였다. 흔히 ‘완화삼’의 화답시로 알려진 ‘나그네’는 이 만남 뒤 그 뒷날의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시적 발상이나 이미지가 너무 유사하다. 그런 탓에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며 함께 사랑 받았을 것이다. 산수그림과 관련된 옛말에 ‘와유지취(臥遊志趣)’란 말이 있다. 지난 날 생각 속 이상공간을 그린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그림 앞에 늘거나 앉아 산수를 구경하며 감상자는 웅송깊은 그

림의 뜻을 새긴다. 이때의 산수는 대개 관념 산수화로 불리는 것들. 나는 시 ‘완화삼’이나 ‘나그네’의 공간 역시 관념 산수화의 이상화된 공간임을 생각한다. 이들 작품의 강과 산이란 현실 어느 곳의 진경산수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 같은 사실이 시를 읽는 이의 울림을 더욱 크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해방공간에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반향을 불렀던 삼인시집 ‘청록집’에 나타난 공간적 특색이란 대개 이런 것일 터이다. 그것이 진경산수가 아니기에 잘못됐다는 생각은 폭 좁은 것이리라.

지사적 풍모와 기개 지닌 시 세계

아무튼 지훈 선생의 초기 시들은 ‘완화삼’의 예에서 보듯, 주로 고전적 문물을 시적 대상으로 취한다. 그러면 지훈 시의 고전적 문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예컨대 고궁 임금의 옥좌를 제재로 한 ‘봉황수’, 전통 옷을 다룬 ‘고풍의상’, 불교 의식의 춤을 그린 ‘승무’ 등등이 모두 그것이다. 이는 해방공간에서 동향인 청량산인 이원조(李源朝)로부터 봉건적 회고적 취향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일련의 작품들은 당시 문장(文章)지에서 모두 정지용의 고풍을 들으며 추천된 작품들이기도 했다. 뒷날(1946년) 청록집이 나온 후 발행인 조풍연이 마련한 술자리에서 정지용은 ‘내가 얼마나 무서운 호랑이 새끼들을 길러냈는가는 아무도 모를 거야. 추천을 해줘도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 적어 보낸 자가 없었어. 흔한 연하장 하나 보낸 자도 없고. 지독한 놈들이야’라고 아들 세 시인의 기개를 우스개삼아 자랑했다고도 한다. 특히 지훈 선생은 유교적 가풍 그대로 올곧은 선비의 면모를 일생동안 보여주었다. 그가 ‘순수시’를 선택

게 건설할 민족문학의 한 축으로 해방공간에 내세웠고 4·19 혁명 후엔 ‘지조론’으로 지사적 풍모와 기개를 과시한 일등이 그것이다. 시세계 역시 한국전쟁을 통과하면서 강한 현실의식을 드러냈다. 말하자면 시 세계의 획기적 전환을 한 것이다. 시가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나아갔다면 이 무렵 전통에 관한 각별한 의식은 웅송깊고 폭 넓은 한국학 연구로 나간 것이다. 시비가 있는 영양 주실에는 아직도 그의 생가가 남아있다. 전통적인 와가(瓦家)로 지훈 선생은 이 집에서 1936년 첫 서울 나들이 때까지 조부 조인석에게 한학을 배웠다. 그런가 하면 시를 썼던 가형 세립(世林) 조동진과 소년회를 조직하고 동인지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같은 자취가 남아있는 생가와 시비로만 이 고장에 남아있을 뿐이다.

‘시인 공화국’ 밑거름 된 조지훈

지훈 선생이 모교 해화전문에 입학한 것은 1939년이었고 졸업은 41년이였다. 그런데 이때 그는 이미 ‘문장’지(誌)에서 추천을 받기 시작한 당당한 학생 시인이었다. 재학기간 중에 등단을 하는, 그래서 학생 문인으로 우뚝 서던 모교의 전통에 지훈 선생 역시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 전통은 지난 1960년대에 ‘시인 공화국’이란 말로 모교가 불리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 지훈 선생은 한국 시의 큰 봉우리이자 모교 시의 대간을 이루는 만해, 미당, 신석정 등을 잇는 지난 세기 중반의 대표적 시인이었다. 특히 그의 선불교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시세계는 모교의 학풍을 빼놓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바 있다.

홍 신 선
시인, 국어국문학과 70졸

위클리 동악문화

독보적인 고려의 미(美)

700년만의 모천회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기획
‘고려불화대전-700년 만의 해후’
오는 21일까지

전세계에 흩어져있던 가장 아름다운 종교예술품인 고려불화들이 700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극적으로 상봉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이 용산이전 재개관 5주년과 G20 정상회의를 맞아 전 세계의 고려불화를 한 데 모았다.

지난 달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고려불화대전’은 일본, 중국, 미국 등에 소장돼 있던 고려불화 61점을 비롯 동시대 중국 및 일본불화 20점, 조선전기불화 5점, 불상과 공예품 22점 총 108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는 고려불화를 다룬 전시 중 가장 많은 작품 수다. 네즈미술관이 소장한 ‘지장 보살도’, 오탁카시(大高寺)소장 ‘관경 16관변상도’ 등 작품 대다수가 우리나라에서 미공개 된 작품이다. 특히 ‘수월관음도’는 일본 센소지(淺草寺)가 소장하던 것으로 고려시대 혜허(慧虛) 스님이 그린 명작 중에 명작이다.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수월관음도’는 1981년 아사히신문사가 발간한 화집 ‘고려불화’의 사진 촬영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일본의 학자들도 보기 힘든 작품으로 출품을 거부했으나 최관장과 학예원의 끈기 덕에 세상의 빛을 보게됐다. ‘수월관음도’는 오른손엔 버들가지, 왼손엔 정병을 들고 법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선재도자를 맞이 한다.

전 세계 작품 소장 기관들과 소장자들은 훼손과 분실의 이유로 반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불화도 한번 좀 고향에 가보고 싶을 것”이라는 이유로 출품을 어렵게 승낙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160여점이나 우리나라에는 약 12점만이 남아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고려불화들이 밀반출되거나 조선시대 송유역불정책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고려인의 높은 미적 수준을 드러내는 섬세하고 단아한 형태와 원색의 화려한 색채와 화려한 금니(金泥), 유려하면서도 먹선과 색선 등 당시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미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평가다. 일부작품은 전시기간이 정해져있어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늦기 전에 가야한다.

한편 우리대학은 국내유일의 불교미술전공이 설치 돼 고려불화 및 조선불화를 계승해나가고 있다. 타의에 의해 고국을 떠나 700년만의 금의환향하게 되는 고려불화. 이제야 마주하는 것이 어쩌면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기약 없는 벅찬 감동을 늦기 전에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기간 : 10.12~11.21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2010 프로야구 강타한 동국 야구의 두 스타 SK 와이번스 박정권 동문과 삼성 라이온즈 박한이 동문

가을 야구를 지배한 동학의 MVP들



“ 프로와 대학을 놓고 고민하던 시절 나를 잡아준 것은 한대화 감독이었다. 가능성을 믿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

포스트시즌의 열기(熱氣)로 가득 찼던 지난 10월! 그 정점인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10월 15일,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을 앞둔 인천 문학야구장의 전광판에는 자랑스러운 동국의 두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SK의 중심타자 박정권(체교00)과 삼성의 톱타자 박한이(경영97)가 그 주인공들. 두산 베어스와 플레이오프에서 MVP를 올랐던 박한이, 삼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SK의 박정권. 4차전의 명승부 끝에 SK가 한국 야구의 왕좌에 오르고 한국 시리즈의 MVP는 박정권의 품으로 들어갔다.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의 MVP에 나란히 오른 동국인들. 올해 가을 야구의 진정한 MVP는 ‘동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국이 낳은 ‘무쇠로 만든 해결사’

박정권은 고등학생 시절 무명이었지만 우연하게도 당시 우리대학 야구부 한대화 감독(체교79, 현 한화 이글스 감독)의 눈에 띄었다. 그는 “때마침 팀에서 필요했던 포지션과 내 포지션이 맞아 운이 좋았다”며 “한대화 감독님이 내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다”며 한대화 감독과의 인연을

떠올렸다.

그가 새내기였을 시절, 4학년 선배로 박한이가 있었다. 박정권은 “다른 학교와의 경기 시 그 존재감만으로도 큰 힘이 됐던 선배”라며 그 당시 박한이를 떠올렸다. 선배 박한이 또한 후배 박정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프로에 와서 만나니 후배라고 눈길이 가더라”며 후배 사랑을 전했다.

박정권은 “내가 대학에 다녔을 시기에 팀 성적을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시절 기억에 남는 경기로 그가 3학년 때 투수로 나가 3점 역전 홈런을 맞아 패했던 고려대와의 경기를 꼽았다.

대학 졸업 후 프로에 입단해서는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찌감치 군 입대를 결정(決定)했다. 군 야구팀인 상무에서 2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은 전역 후 팀에 복귀했을 때 그 진가를 드러냈다.

때는 2008년, 시즌 초 부진하기만 했던 성적이 여름이 되자 살아났다. 한 마디로 불방망이였다. 6월 한 달의 타율이 3할8푼을 넘었다. 프로의 무대를 밟은 지 5년. 팬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승세(上昇勢)는 오래가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1루 수비를 보다 주자와 부딪힌 박정권은 왼쪽 경강이 골절상을 입고 시즌 아웃됐다. 2007년, 그는 백업멤버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맞이했다. 그리고 2008년 당당한 주전의 이름으로 우승을 이루자 다짐했지만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2008년 팀의 우승을 TV 중계로 지켜봤다. 박정권은 팀의 우승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만일 수는 없었다. 2009년, 박정권은 불박이 주전이 됐다. 타순은 주로 4,5번. 팀의 당당한 중심타자로 인정받았다. 그의 활약은 포스트 시즌에서 빛을 발휘했다. 두산과의 플레이오프에선 MVP자리에 올랐고, 이어진 한국시리즈에서도 3할9푼의 타율을 남겼다.

드디어 2010년, 삼성과의 한국시리즈에서 그는 맹타를 휘둘렀다. 4경기 13타수 5안타 1홈런 6타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 그리고 그의 활약으로 이뤄낸 팀의 우승. 야구를 시작한 이래 그토록 뜨거웠던 순간은 없었으리라. 한국시리즈 MVP의 자리에 선 그는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야구 인생의 첫 단추, 동국대학교 야구부

박한이는 어느 운동선수들과는 달리 학창 시절 다양한 추억을 쌓았다. 그는 학교 측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운동선수로서는 드물게 경영학과 출신인 그는 대학 시절 고된 훈련 틈틈이 같은 과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했다고 한다. 박한이는 “내가 야구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라는 것을 알아본 몇몇 선배들이 먼저 말을 걸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축제 기간, 학교에서 여는 일일주점에 서빙 일을 했던 것과 경영학과 동문회에 참석해 부른 노래 때문에 망신을 당했던 일은 아직도 생생하다며 웃었다.

또한 박한이는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재학생들이 당시 경기가 열렸던 동대문 야구장에 찾아와 관중석을 가득 매웠던 것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대학 야구리그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을 할 때면 동대문 야구장에서 깃발을 들고 학교까지 다함께 행진을 했던 것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밝혔다. 박한이는 “그 때, 우리학교 학생들만큼 열정적으로 응원전을 펼쳤던 학교가 없었다”며 재학생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에 더욱 활기찬 야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후배들이여, 자신을 믿고 야구를 사랑하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야구를 하고 싶다”는 박정권의 스윙은 쉼 없이



“ 대학시절 우리 야구부는 최강이었다. ”

우승 후 응원단과 함께 동대문야구장에서

학교까지 행진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

없다. 그는 “지금은 눈앞에 있는 아시아시리즈만을 생각한다”고 오는 13일부터 열릴 아시아시리즈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그의 스윙은 11월의 찬 공기도 서슴지 않고 가른다. 절실하게 노력하는 자에게 영광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몸소 체현했기 때문이다. 박정권은 “절실한 마음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후배들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앞으로 한국 야구를 책임질 후배들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다. 박한이는 또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야구의 진정한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면 반드시 프로 무대를 밟아봐야 한다”며 후배들에게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 자체를 즐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야구의 바닥부터 정상을 향해 천천히 올라갈 때 까지 그를 잡아준 것은 오직 ‘절실함’ 하나였다. 박정권. 프로야구의 진정한 에너지는 야구를 사랑해주는 팬들의 뜨거운 마음이라는 박한이. 이토록 간절한 오늘을 사는 박정권과 팬과 함께 즐기는 야구를 보여주는 박한이의 MVP보다 빛날 다음 순간을 기대해본다.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Museum
Special Exhibition

2010년 기획특별전
배우 김희철의 회화전
문예계 전격전

컬터와 함께한 반세기

- 전시기간 2010. 11. 9(화)~12. 24(금)
- 전시장소 동국대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 관람시간 월-금(10:00-16:00)
- 개막식 2010. 11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Seeing
Sound
Listening
Image

SIMM
보는소리
듣는영상

2010.11.12
(금) pm7:30

영화제작과정 전시 pm7:00
동국대학교 교 이해음 예술극장

SPFF
STOP! 성매매

STOP! 성매매
영상 상영회

동국대학교와 함께하는

일시 2010. 11. 19(금) 오후 1시~4시
장소 동국대학교 문화관 2층 혁명세미나실

주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화제의 책

권력에 물든 '허수아비'의 춤사위



허수아비 춤

지은 이 조정래
펴낸 곳 문학의 문학
12,000원 / 440쪽

최근 모 기업의 편법상속, 차명계좌 의혹, 비자금 조성 등 비리행태가 밝혀지면서 기업 비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병엄한 조직 매커니즘, 비자금 실태, 로비 등을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풀어낸 소설이 새롭게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로 우리대학 조정래 석좌교수가 집필(執筆)한 '허수아비 춤'이다.

이번 소설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대하소설로 풀

어냈던 조정래 작가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 권력의 횡포와 비리를 신랄하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설 '허수아비 춤'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권력층과 재벌의 비리와 탈법 등 파렴치(褻廉恥)한 행위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조정래 작가는 이번 책에서 우리나라가 정치민주화를 넘어 분배의 법칙이 올바르게 지켜지는 경제민주화 시대로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즉 모든 재벌들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과 그들이 주체가 된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설은 대기업 '일광그룹'이 비자금문제와 관련해 회장이 사법적 처리를 받은 것이 계기가 돼 비자금 전문 관리 조직인 '문화개척센터'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문화개척센터'는 회장의 비자금 조성(造成)을 위해 검찰, 정부 고위관계자 등 한국 사회 주류의 권력자들을 돈으로 움아매기 시작한다.

소설 '허수아비 춤'은 '문화개척센터'를 통해 스카우트전쟁, 스톡옵션, 편법상속, 차

명계좌, 비자금 상납 같은 한국 상류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작가는 회장 앞에서 돈과 재물을 위한 '허수아비 춤'을 추는 등장인물을 통해 스스로를 '골든클래스'라 칭하는 모습, 역대 소꿉을 즐기는 모습, 50억 원의 스톡옵션이 적다고 불평하는 모습, 광고로 언론사를 통제하는 모습 등 부패(腐敗)한 상류층의 세태와 풍속도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작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경제 민주화 실천연대라는 시민단체와 시민단체의 대표로 추대되는 검사 출신 전인욱 변호사, 대기업비리를 비판하는 칼럼을 신문에 썼다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허민 교수를 통해 대안(代案)과 희망(希望) 또한 제시하고 있다.

소설 '허수아비 춤'은 '너는 지금 무슨 춤을 추고 있느냐'고 묻는다. 소설의 주인공들 처럼 영혼을 팔아 욕망의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 춤을 추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다. 작가가 허민 교수의 칼럼을 통해 제시했듯 우리 스스로가 대기업에 속고 있는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노예(奴隸)로 남고 말 것이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심간안내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 실험실

지은 이 무라카미 요시히로
옮긴 이 이진주
펴낸 곳 좋은책 만들기
13,000원 / 248쪽

한 아이가 되고,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면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가 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육아태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1~2%로 매우 적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여동생이나 남동생의 탄생에 대한 기억, 인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와 같은 평상시 우리들이 궁금해 하던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사람들은 심리학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인 경우가 많다. 저자인 후지대학 무라카미 요시히로 교수는 책에서 과학적 방법과 실험을 통해 세간에 떠도는 오해, 미신, 괴담, 유사 심리학 등 왜곡된 심리학이 아닌 진정한 심리학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장에서는 육아신화에 관한 오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는 흔히, 애정을 담아 꼭 껴안으면 상냥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기술

지은 이 Jonathan Silverman 외 2명
옮긴 이 박기홍, 성낙진 외
펴낸 곳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00원 / 3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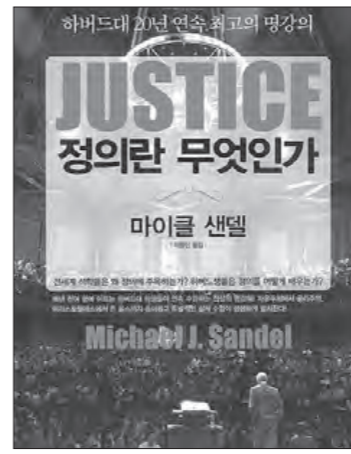
런 환경 속에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 바로 우리대학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로 이들은 개설 20주년을 맞아 의학적 의사소통 분야에서 명저로 뽑히는 Skills for Communicating with Patients를 번역해 출판했다. 이 책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지침서로 의과대학 학생,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모든 보건의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은 의료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의대 학생, 전공의, 전문의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필수적인 기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 교육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중요해지고 의과대학 교과목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겨우 10년 밖에 안됐다. 그리고 2009년에 이르러서야 의

사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되면서 의학적 의사소통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런

한희원 교수의 독서산책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지은 이 마이클 샌델
옮긴 이 이창신
펴낸 곳 김영사
15,000원 / 404쪽

불 기회가 있었다.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토론의 자료로 제시해 보았다. 열기는 뜨거웠다. 원래 정의란 구체적인 선택의 문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라는 실천적 분배의 문제이다.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17세기 공리주의 철학자들은 행복을 창출(創出)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하여 정의논쟁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후 정의는 공리주의적 정의론,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 절대자유주의적 정의론 그리고 공동체적 정의론으로 분화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도모한 하버드의 성인 존 롤스는 원초상태의 무지의 베일에서 만든 절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고, 이에 맹렬하게 반대한 로버트 노직은 국가역할의 최소한을 말하면서, 자유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노직은 특히 국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인위적 간섭이라고 보면서 빈부격차도 인간사회의 자연스러운 단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샌델 교수는 정의란 사회의 미덕을 고양하고 공공의 선을 함양(涵養)하는 삶의 양태라고 말하면서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존 롤즈, 로버트 노직 그리고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과 선. 후배 교수들로 학문적 논쟁을 통해 오늘날 정의론을 형성한 거인들이다. 사실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임마누엘 칸트의 자유개념과 도덕철학을 통한 인간이 해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샌델 교수는 책에서 칸트의 도덕철학도 잘 소개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많은 잘못된 현상중의 하나가 인간이 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온다. 이것이 필자가 담당하는 모든 강의에서 칸트의 자유개념과 도덕철학을 맞보기로 강해해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샌델 교수의 책만으로는 정의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에세이 식으로 기술한 탓으로 제미는 있지만 정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공정사회론도 책의 결론부분만 보고 정의를 공정이라고 쉽게 단정할 잘못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식인주의(cannibalism)로부터 대리임신, 아프가니스탄 양치기 소년의 딜레마 그리고 PGA 골프논쟁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재를 준비하고 정의론을 내년 교양과목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되어도 그리고 그 중심에 동국대학교가 있다면 50년 후 약 100억의 글로벌 지구환경에서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무장(武裝)된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을 대한민국을 하늘에서 지켜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법과대학 교수)

**천연 특산품의
인삼복령·천마·지황·물로 만드는...**

동욱고

품목허가번호 000001

동욱식품 부설 약용근자원연구소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 민 원)
문의 전화 :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동욱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욱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직장인

노약자

어약자

자매품

Choco DONGOKGO
Dongokgo Chocolate
초코 동욱고

자매품 초코동욱고는, 동욱고를 섭취하는 분들께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욱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욱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썩트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가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욱고"와 "초코동욱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협동조합 (TEL. 02-2260-8949)



채재성
체육교육과 교수

달하나 천강에

스포츠에서의 경쟁

동네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최근에 생긴 일이다. 이곳에는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아파트 주민들 중에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 운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대회를 갖는다.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두 사람이 서로 말도 안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소위 "이웃집 웬수"가 되어버린 사건이 정기대회에서 벌어졌다. 누가 들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의 내막(内幕)은 이렇다.

정기대회에서 이웃 간의 경기가 벌어졌는데 게임도중 상대가 친 볼이 라인을 벗어났는지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사소한 판정의 시비(是非) 끝에 말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은 경기를 도중에서 끝내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이웃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버린 것이다. 스포츠 경기에서의 지나친 경쟁의식과 승리에 대한 집착이 일상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경쟁의식(競爭意識)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스포츠 장면에서의 경쟁이야말로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포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신체활동은 타인과의 경쟁을 수반하는 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협동은 경쟁을 위한 협동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과 그것이 인정받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을 갖기 위해 중요한 것이며, 신체활동을 통한 경기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났음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기인하는 행동이며, 그것에 의해 자기를 아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거기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없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매년 크고 작은 스포츠 경기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다. 교정을 지나다 보면 학교 운동장과 만해 광장 등에는 언제나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경기를 즐긴다.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룰과 예절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이기려는 잘못된 경쟁만이 난무하게 될 때 대학생들의 스포츠는 가치를 잃게 된다. 진정한 대학 젊은이들의 스포츠 경기는 "분노 없는 경쟁과 적의 없는 기술"이라는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이 기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학교생활도 그랬으면 한다.



동문칼럼

문한성
법학과 83졸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변호사, 그리고 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 날 수행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음 날 일정을 검토(檢討)한다. 재판준비, 상담, 법정출석, 내부회의, 외부협상, 교육, 저녁약속 등. 일반인들이 언뜻 보면 하루에 소화해 내기 어려운 일 정표다. 변호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국 현대사에서 언제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겠지만 내가 모교 교정에서 맞은 '70년대 말, 80년대 초'는 20대였던 나에게 정말 격동의 시기였고 도전의 시기였으며 한편으로는 암흑의 시기였다.

모교에서 보낸 20대 초반 시기는 개인적 문제에 골몰하였던 나에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식의 단초를 제공했고 그러한 경험은 내가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바탕이 됐다. 그런 점에 대해 모교에 감사한다. 애초 모교입학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하려고 했던 나는 졸업 후에야 변호사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운 좋게 합격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변호사를 선택했다. 나는 여지껏 변호사의 길을 택한 것에 대해 한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그러나 지난 변호사 생활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변호사는 자유롭다. 일단 수입할 사건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수입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외부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열정(熱情)과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다. 동료, 선배 변호사들이 열정에 대해 인정을 해준다. 난 개인적으로 이런 변호사가 좋다. 이런 변호사가 되려면 열정과 배짱이 있어야 한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먹고사는 것은 걱정이 없다. 한마디로 평생직장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덤으로 자기만족과 명예도 얻을 수 있다.

한편 사회가 전문화되고 글로벌 시대가 됨에 따라 변호사의 주된 지역에도 변화의 물결이 닥쳤다. 이제 변호사는 송무사건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게 됐고 이것이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가 되었다.

M&A, 외자유치, 합작회사 설립, 구조조정, 특허도입 및 라이선스 계약, 정보통신 관련 문제, 정책수립 참여, 공청회와 토론회 참석, 각종 협상 등 종합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대부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조그만 법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던 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2년 반 전 합병을 했고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법인은 변호사가 60여명 되는 국내 12-13위 법인이 됐으며, 내년에는 변호사를 1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 역시 자기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割愛)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로펌에서는 매일 점심시간에 변호사들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법률문제와 전문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발제한다. 바깥에서 볼 때는 힘들어 보일지 모르나 변호사들은 선배들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대형 로펌에서만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시대도 변했다. 이제 송무사건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변호사는 없다.

그리고 변호사의 영역은 점점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는 봉사할 기회도 점점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칼럼

김광록
건축공학과 4학년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녀와서

경남 창원 출신인 내게 부산은 아주 가까운 도시였지만 대학 진학으로 사정은 달라졌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내 청춘을 뒤흔들었던 여러 작품을 소개하며 그리움과 애뜻함의 대상이 됐다. 취업준비로 도서관에 머무는 날 PIFF참가단 모집 포스터는 한 줄기 섬광으로 다가와 거대한 등대가 되더니 경부고속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금요일 밤, 우리는 부산으로 달린다. 바다냄새는 너무나 정겨워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첫 영화는 '조제, 호랑이와 물고기들' 등을 배급한 스폰지하우스 조성규 대표의 '맛있는 인생'.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강릉 일대 풍경과 맛집을 배경으로 펼쳐낸 영화는 시종일관 담백한 분위기로 토요일 아침을 채워준다. 그리고 상영 후 이어진 관객과의 대화에서 관객과 감독, 주연배우들이 뜻밖의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갔다. 일반 극장에서는 체험할 수 없을 화자와 청자의

소통, 그것이야말로 일주일여의 영화축제를 찾은 관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特權)일 것이다.

나의 두번째 영화는 제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악인'. 영화는 살인범과 그를 따르는 여인,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가족들과 그들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을 관조(觀照)적 시선으로 비추며 관객에게 질문한다.

과연 진정한 '악인'은 누구인가. 가해자와 피해자, 선과 악의 이분법적 잣대로 나누기엔 너무나 복잡 난해한 인생사를 통해 죄에 대한, 그리고 인간 본연의 윤리적 관념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속소로 돌아온 나는 '해운대 동국인의 밤'에 함께했다. 실랑보다 고운빛깔의 모래 위에 둘러 앉아 원을 만들고 술잔을 기울인다. 푸른 달빛아래 가는 영화와 일상에 대한 진솔한 대화들. 그렇게 원은 점점 커지고 대화의 색채들은 더욱 다양해진다. 젊음이

란, 일상에 잠기는, 그리고 이렇듯 그 안에서 여유(餘裕)를 만끽하는 상층된 과정의 연속이 아닐까.

아쉽게도 2박3일의 일정은 눈깜짝할새 저물어가고, 동백섬 산책과 PIFF행사장 방문을 끝으로 상경길에 올랐다. 짧은 시간동안 너무 정들었던 도시 부산. 따뜻한 시선을 담은 영화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려는 이들의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축제라 느껴졌다.

어쩌면 가장 불쌍한 시대의 대학생일지 모를 우리에게 영화는 조금 더 서로의 벽을 허물고 진실한 모습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준다. 무한한 영상 속에 저마다의 꿈을 담아 함께 공유하는 것. 정제된 서울 생활에서 얻지 못할 활력을 넘치도록 채워왔기에, 앞으로 한동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영화와 및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만평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꿈꾼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디지털 스토리텔링” 공모전 공고

동국대학교 2010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콘텐츠 發展所』

세상을 풍어가는 동국인의 스토리

1. 지원 분야

소재	적용 콘텐츠	시상 규모
인문·과학적 소재	연극, 영화, 방송영상물,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최대 2백만원
문화원형 소재	스마트폰 앱(App) 등의 희곡, 대본, 시나리오	

※ 소재의 구분

- 1) 인문·과학적 소재: 문학, 역사학, 지역학, 철학, 종교, 과학, SF, 민속, 연극, 예술 등 분야 소재
- 2) 문화원형 소재: 오랜 역사 속에 형성된 우리 전통 신화, 전설, 정치, 외교, 군사, 의식주, 건축, 의례, 기술, 음악 등 분야 소재

2. 신청형태, 자격 및 출품수

- * 신청 형태: 동국대학교 재학생 단독 또는 그룹
- * 신청 자격: 동국대학교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 * 동일인(팀)의 출품수 제한은 없음

3. 시상 및 상금

단 계	비 고
총장상 (1명)	상금 200만원
산학협력단장상 (1명)	노트북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장상 (1명)	아이패드
콘텐츠발전소장상 (4명)	아이팟터치 4세대 (32G)

4. 신청기한: 2010. 11. 30(화) 15시까지

- [공모전 참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www.dongguk.edu/html/cooperate/index.jsp>)
-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 (<http://hunic.dongguk.edu>)
-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http://www.dongguk.edu>)

주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
후원: 서울통신산업진흥원, (재)서울테크노파크, 서울상공회의소, (사)한국기술거래사회, (사)문화인재경영협회, (사)한국방송통신융합서비스협회

2010-2학기 영상대학원, 영상미디어대 주관
예술의 전당 김장실 사장님과 함께하는 21C 대학생을 위한 특강 안내

1. 주제: 한국 대중가요의 정치사회학*
2. 일시: 2010. 11. 11(목) 오후 3시
3. 장소: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
4. 주최: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5. 김장실 사장님 주요 약력

- 현, 예술의전당 사장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사관
-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98년 홍조근정훈장 등 수여

『철학·사상·문화』 제11호 논문 모집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는 2011년 1월 31일 발간되는 『철학·사상·문화』 제11호에 수록될 논문을 모집합니다. 『철학·사상·문화』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모집 대상 영역은 철학, 사상, 문화입니다.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제출 마감일: 2010년 12월 15일(수)까지
2. 원고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insewidgu@gmail.com)
3. 원고 명기사항: 투고자의 성명(한글/영문), 소속, 주소, 전화번호
4. 원고 제출 관련사항: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홈페이지 (<http://ims-ewt.dongguk.ed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논문은 2011년 1월 31일 발간 예정인 『철학·사상·문화』 제11호에 수록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02-2260-8838) 또는 연구소 조교 박영식(019-629-16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제 4 회 동국 시나리오 공모전
2011.01.12-2011.01.14

신청자격 및 신청단위
- 신청자격: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 학부/대학원(석사) 재학생/수료생
- 신청단위: 개인

신청 및 접수기간: 2011.01.12(수) - 2011.01.14(금)

공모부문
- 공연예술: 희곡 / 뮤지컬 대본
- 영상시나리오: TV 드라마 / 영화시나리오 / 게임시나리오 / 애니메이션시나리오

제출기준 및 형태: A4 규격을 중심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 (11point 글자)

수상작 발표: 2011.02.01(화) (본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시상내용
- 대상: 각 부문별 1명(총 2명) 각 100만원 (본 대학원 입학시 장학 특전)
- 최우수: 각 부문별 1명(총 2명) 각 50만원
- 우수: 각 부문별 2명(총 4명) 각 30만원
※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제출물(신청서 접수 시 제출)
- 공모신청서 및 시놉스(A4 3매 이내) 1부
- 시나리오 1부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영상미디어대/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매학별관 1층)
- 연락처: 02-2260-3763, 3764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장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론

G20 서울회의와 의장국 한국의 역할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는 의장국 역할을 맡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조타수 역할이라는 막중한 과제와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새로운 국운상승이라는 외교적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섬에 따라 그동안 잠복해 있던 G20 참가국들 사이의 이견과 이해대립이 첨예(尖銳)하게 맞서고 있다. 이 견조정과 조율을 맡은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미중 간 '환율전쟁'으로 치닫된 갈등을 복합하고 향후 환율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방향타를 마련했다. 면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중재노력을 통해 미중을 비롯해 참가국 모두가 수긍하는 타협책을 도출했다는 것은 다가올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선부른 의구심과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마련된 '경주합의'의 모멘텀을 살려 세계

경제가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이 되도록 'G20 서울 선언'으로 보다 구체화(具體化)하는 일이다.

경주합의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경주수시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의 환율시장 개입을 통한 경쟁적 평가절하 시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억제수단을 구축한 것이다. 둘째 IMF 쿠틀 6%와 유럽이 차지하고 있던 삼십이사 자리도 2석을 줄여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신흥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IMF의 지배구조개혁은 G20에서 신흥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셋째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 의무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의제는 개도국의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개발격차해소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G20의 대표성과 정당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의제들이었다.

그러나 '경주합의'는 아직은 큰 틀에서의 원칙적 절충점에 불과할 뿐 정상차원의 'G20 서울 합의'로 전환(轉換)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실무차원의 정교한 정책조율과 중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G20 정상 차원에서 이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외교적 리더십도 발휘해야 한다.

G20이 글로벌 위기이후에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협력체제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서울 정상회의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의장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면 G20체제가 안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 간 합의의 도출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인정받아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과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설

구성원 의견 조화롭게 반영된 총장 기대한다

총장후보자 추천 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오는 8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총추위는 8일 첫 소집을 갖고 위원장을 선출해 2개월 내에 총장후보자를 법인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학내에서 총장선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本格化)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학내구성원들은 총장선출이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각인(刻印)해야 한다. 총장은 4년 동안 우리대학을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학내구성원 모두가 총장선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학내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대학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총장상에 대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론(公論)의 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현재 직원노동조합 등이 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수, 직원, 학생 등 각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총장을 선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학내구성원 모두를 아우르고 진정으로 대학의 발전을 원하는 총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구성원이 힘을 합쳐 바람직한 총장상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총추위는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들은 학내외를 대표해 총장 선출이라는 중대한 일을 맡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총추위는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해 법인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지금부터가 총장선출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룰 때일수록 학내구성원들의 화합과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태도를 바탕으로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이 조화(調和)롭게 반영된 총장이 선출되기를 바란다.

시간강사 문제 해결위한 근본적 대책 내놔야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불안과 열악(劣惡)한 처우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 소속의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지난 달 25일 '시간강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이 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급여 수준을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또 학기 단위 계약을 연간 단위 계약으로 전환해 방학 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肯定的)이다.

하지만 이번 대안이 시간강사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신분, 보수, 연금 등에서 정규교원과 동등(同等)하게 보장이 되지 않고 권고사직 금지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돈이다. 시간강사를 고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급여 인상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개혁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提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학은 전임교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교원확보율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대학에서도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원 설치 기준을 강화해 잠재적 시간강사를 과잉(過剩) 배출하는 대학원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간강사 문제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강사 문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시간 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한다.



메아리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진정한 슈퍼스타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選舉)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루스벨트가 공화당 후보인 랜덴에게 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개표결과는 정반대였다. 열세로 알려졌던 루스벨트가 당선인 확실시됐던 후보자 랜덴을 이겨버린 것이다. 이 선거 결과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된다. 언더독 효과는 경쟁에서 절대적인 강자가 존재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가 강자를 이겨주길 바라는 심리(心理)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현상이다. 즉 투표자들은 동등 심리로 루스벨트에게 표를 행사한 것이다. ▲지난 달 23일 '슈퍼스타 K' 결승전(決勝戰)에서 당초 예상을 뒤엎고 허각이 우승을 차지했다. 허각은 그동안 노래 실력이 출중(出衆)하다는 평가는 받아왔지만 우승 후보자로 거의 꼽히지 않았다. 패자부활전을

거쳐 톱 11에 선정된 후에도 사전 온라인 인기투표에선 늘 하위권에 머물던 허각이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언더독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자의 영웅을 기다리는 심리가 허각이 최종 우승을 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들은 실력만으로 우승을 차지한 허각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보며 사회의 희망을 찾아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며 '공정한 사회'를 화두(話頭)로 내세웠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공정한 사회의 모습을 찾지 못한 채 있다. 최근 장관의 딸이 특채로 선발되는 등 행정부처와 국회에서 특채 논란이 큰 파문을 빚었다. 이렇듯 현재 우리사회에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위들이 만연해 있다. 소위 '개전에서 용난다'는 말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지 오래

다. 즉 대한민국에서 잘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잘난 배경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실력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워 졌다는 것을 뜻한다.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허각의 우승은 어쩌면 약자가 이길 길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메시지로 읽히지 않을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좌절 속에서 말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외침을 기성세대나 사회지도층은 더 이상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 개전에서 용이 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공정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일 뿐이다. 허각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실력만으로 '슈퍼스타 K'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 다른 분야에서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진정한 슈퍼스타가 탄생(誕生)하길 기대해본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유훈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최진아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겨울 계절 학기 안내

겨울 계절학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1. 수업 일정
: 2010.12.23(목)~2011.01.18(화)/주4일 수업(화,목,금), 16일간
※ 수강일: 2011.01.18(화)

2. 일반과 개설 대상 교과목 및 시간
가. 개설예정 교과목(별첨자료 참조)
- 2010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교과목 중 계절학기 개설 기준인원을 충족한 교과목
- 단, 사이버강좌 및 학과에서 개설을 원하지 않는 전공/실용실습과목은 제외
나. 개설 기준 인원: 강좌별 10명 이상(수강신청 및 등록)
다. 개설 시간

이수구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교양/교직	학수번호 끝자리 홀수강좌	학수번호 끝자리 짝수강좌
전공	1학기 개설과목	2학기 개설과목

※ 개설시간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수업시간

수업시간	오전	오후	야간
1시간	09:30~10:30(1.5~2.2시)	15:00~17:00(8~8.5교시)	18:50~19:40(11~11.5교시)
2시간	10:30~12:30(2.5~4교시)	14:00~16:00(6~7.5교시)	18:00~19:40(10~11.5교시)
3시간	09:30~12:30(1.5~4.2교시)	13:00~16:00(6~7.5교시)	18:50~21:30(11~13.5교시)
4시간	09:30~13:30(1.5~5교시)	13:30~17:30(6.5~9교시)	18:00~21:30(10~13.5교시)
5시간	09:30~14:30(1.5~6교시)	14:30~19:30(6.5~11.5교시)	-

3. 수강신청학점 : 재학생 6학점 이내/휴학생 3학점 이내 신청가능 (타대학 계절학기 교류학점 포함)

4. 수강신청
가. 기간: 2010.11.02(화)~11.03(수)/2일간
나. 장소: 교내컴퓨터 실습실(개방시간4), 개인PC(10:00~24:00)
다. 수강신청방법
- 정규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u:Drms-학사정보-교과수업-계절학기관리-계절학기수강신청

5. 수강신청 정정(u:Drms)
가. 정정 기간: 2010.11.08(월)~11.11(목) 10:00~24:00/4일간
나. 개설 예정 교과목 안내: 2010.11.05(금)
다. 유의사항
-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개설예정 교과목"을 홈페이지 "공시사항"에 게시 하오니, 패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바람.
라. 수강신청을 못한 학생도 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6. 수강과목 취소(u:Drms)
가. 취소 기간: 2010.12.20(월)~2011.1.05(수) 10:00~24:00
나. 취소 방법: u:Drms-학사정보-교과수업-계절학기관리-계절학기수강신청

다. 유의사항
- 수강취소 불가: 강좌운영상 강자폐쇄기준(10명 미만) 이하로 취소 발생시
- 수강취소는 상기 해당기간에만 가능함

일시	환불금액	환불일자(예정)
개강전	전액	2011.1.12(수)
1주차(개강후-12.29(수)까지)	환불(수강료의 5/6)	
2주차(12.30(목)-2011.1.5(수)까지)	환불(수강료의 2/3)	
2011.01.06(목) 이후	환불 X	

- 수강취소 기간 이후에는 수강취소는 불가하나,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환불할 수 있으며,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됨. (증명서류 첨부)

7. 개설 교과목 수업시간 확정 발표: 2010.12.01(수)
※ 서울캠퍼스 홈페이지/학사생활/학사센터/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참조

8. 수강료
가. 이과과목: 1학점당 ₩90,000원

학사지원본부

●●● 금주의 식단 ●●●

월(11/1)	탕수육(2200)/돈가스(2500)/달걀보스스볶음밥(2200)/갈비탕(3000)
화(11/2)	안동찜닭(2500)/피자돈가스(3000)/산채비빔밥(2200)/스팸김치찌개(2500)
수(11/3)	돈삼겹두루치기(2200)/치킨가스(2500)/참치김치볶음밥(2200)/된장찌개(2500)
목(11/4)	갈비장단(2200)/스파게티(3000)/치킨골소스덮밥(2200)/참치섞어찌개(2500)
금(11/5)	제육순대볶음(2200)/합박스테이크(3000)/짬뽕덮밥(2200)/만두전골(2500)

동국대 관내 식당

월(11/1)	해물장단(2200)/고구마돈가스(3000)/김치불고기덮밥(2200)/샤브칼국수(2500)
화(11/2)	고추참치(2200)/돈가스(2500)/제육오징어덮밥(2200)/해물된장찌개(2800)
수(11/3)	삼선짜귀(2200)/콤비가스(3000)/버섯덮밥(2200)/설렁탕(2500)
목(11/4)	치킨탕수(2200)/피자돈가스(3000)/날치알김치볶음밥(2200)/버섯들깨탕(2500)
금(11/5)	소세지두루치기(2200)/치즈돈가스(3000)/치킨덮밥(2200)/쇠고기전골(2500)

아리수

월(11/1)	돈육콩나물덮밥(2200)/고구마돈가스(3000)/달고기비빔밥(2200)
화(11/2)	짬뽕덮밥(2200)/불돈가스(2800)/양송이불고기덮밥(2200)
수(11/3)	치킨골소스덮밥(2200)/돈가스(2500)/오삼불고기덮밥(2200)
목(11/4)	제육덮밥(2200)/카레돈가스(2800)/해물짜장덮밥(2200)
금(11/5)	유산슬덮밥(2200)/치즈돈가스(3000)/고추잡채덮밥(2200)

혜화

월(11/1)	달걀비빔밥(2200)/고구마돈가스(3000)/날치알김치비빔밥(2000)
화(11/2)	삼겹살야채비빔밥(2200)/칠리돈가스(2500)/오삼불고기덮밥(2200)
수(11/3)	제육김치덮밥(2200)/산나물고추장살밥(3000)/양송이덮밥(2200)
목(11/4)	짬뽕덮밥(2200)/치즈돈가스(2800)/쇠고기면덮밥(2200)
금(11/5)	새벽참치비빔밥(2200)/갈비탕(2500)/치즈라볶음밥(2200)



① 뜨겁게 달아오른 무대 ② 대상을 받은 김준영(경제3) 군이 열창하는 모습 ③ DJ DOC 김창렬이 소주를 원상하고 있다. ④ 외국인 관객으로 눈길을 모은 이탈리아인 주시와 그녀의 친구 총여학생회장 나송희(한국화4) 양 ⑤ 강현석(사회3) 군이 노래가 끝나고 평소 좋아하던 후배에게 무릎을 꿇고 감쪽 프로포즈를 진행해 성공했다.

가을하늘 슈퍼스타D

깊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별들의 전쟁으로 동악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바로 지난 29일 열린 '슈퍼스타D'가 그 것. 추운 날씨조차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도전자들의 열기, 뜨거운 응원, 날카로운 심사평, 초대가수의 공연이 섞인 열띤 현장 속으로 찾아가 보자.

○...“슈퍼스타 D의 가장 빛나는 별을 찾아라! 제 점수는요?” 대운동장을 가득 채운 모든 동국인 들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이었다. 과연 1차와 2차의 치열한 선발전과정을 거쳐 누가 슈퍼스타D 1회의 우승컵을 거머쥘 것인가. 지난 8일, 13일 1,2차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이 최고상금 100만원을 목표로 대운동장에서 열린 노래실력을 뽑았다. 이번 슈퍼스타D는 기존의 목격가요제와는 다르게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슈퍼스타K와 같이 심사진을 구성해 더욱 살벌하게 치러져 긴장감과 재미를 더했다는 후문이다.

○... 사람의 세레나데는 슈프림팀의 “땡땡”으로? 무슨 소리이고 하니 강현석(사회3) 군이 무대 막간을 이용해 평소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던 여자 후배의 인상착의를 밝혔다. 결국 빨강머리의 그녀는 MC에 의해 무대로 나와 강현석군의 프로포즈를 받는 데..... 결과는 대성공! 그의 떨리는 고백은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그녀의 포옹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게다가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 인기상을 호언장담하던 그녀 결국 인기상까지 거머쥘 결경사를 맞이하게 된 그. 한동안 동악에 슈프림팀의 “땡땡”이 고백 송으로 유행할 예정.

○... 이번 슈퍼스타 D의 MC는 알고 보니 동악의 숨은 큐피드였다. 한 커플을 탄생시키고 불과 몇 분이나 지났을까. 이번엔 김준영(경제3)의 큐피드가 되었다. 노래가 끝나고 인터뷰 시간에 뜬금없이 MC는 빨간 목도리를 착용한 그녀를 가리켰고 김준영군은 무언의 긍정을 했다. MC는 빨간 목도리의 그녀에게 팔로 동그라미나 가위 표시중 하나를 지시했지만 수많은 관중 속에 용기 있게 가위표시를 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 MC의 입담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실례지만 전공이 연애심리학?”

○... ‘두근두근두근.....’ 과연 동악의 별 슈퍼스타 D는 누가 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행운의 사나이. 결국 대상은 김준영(경제3)군에게 돌아갔다. 중간에 노래가 끊겼지만 발군의 기지를 발휘해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대상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이제 상금 100만원으로 빨간 목도리의 그녀와 알콩달콩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 일만 남은 듯? 한편 우수상은 7번 정다희(컴퓨터공학1)양, 최우수상은 4번 최민기(수학교육4), 이원호(신문방송4), 갈우주(영어통번역2) 군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 “저기, 공연비 100원만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DJ DOC가 공연 중에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알고 보니 음향상태가 아주 조금 좋지 않아서라고 웃으며 넘기지만 실제로 공연준비가 조금은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전투표결과 1위였던 참가자 1번 박진우(게임멀티공학3)군은 노래 도중 실수로 관계자가 버튼을 눌러 난데없이 nothing better가 메들리로 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상을 받은 김준영(경제3)군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DJ DOC 하늘씨 말처럼 우리 다음에는 공연비 100원만 올려보는 것은 어떨런지.

○... 그런가하면 이번 초대가수는 나비, 카피머신, DJ DOC가 초청되어 동악의 열기를 더욱더 달구었다. 특히 DJ DOC의 무대는 가장 인기 있었는데..... 학생들의 요청에 못이기는 척 소주 한 병씩을 원상한 그들. 건강을 고려한 나머지 숙취해소음료까지 챙겨 먹은 평균나이 30대 후반의 젊은 오빠들은 연신 간 쓰다듬기에 바빴다고 한다. 또한 즐지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까지 무대 위로 끌려나와 소주 원 상을 해 그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고. 취한 나머지 조금은 야한 농담을 하기도 한 점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 이런사람이야~” 라고 노래하는 그들이니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할 듯.

DJ DOC의 무대로 화려한 동악의 축제는 막을 내렸다. 한편 이번 슈퍼스타D는 동국 미디어센터에 속해있는 교육방송국이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현장을 찾지 못한 동국인도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뜨거웠던 현장을 다시 보고 싶거나 혹시나 보지 못했다면 DUB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OPEN YOUR DREAM!

꿈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 우리 이곳에서 서로의 꿈에 희망을 덧붙이고 열정을 더할하자
 다양한 생각, 같은 열정을 가진 이들이 모여 꿈을 더 크게 키워가는 곳-
 그래, 우리 영삼성에서 만나자!

[영삼성 열정운영진 10기 여러분들입니다]